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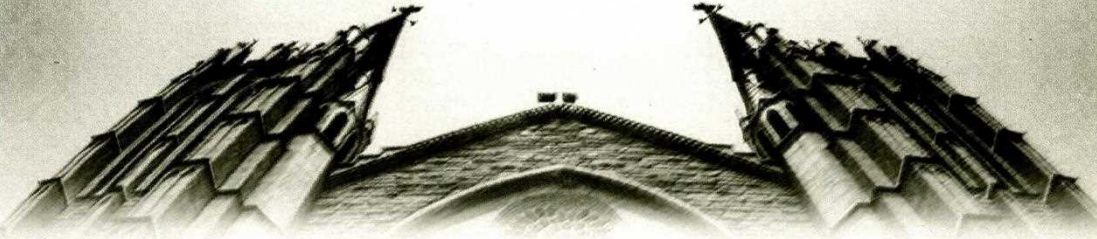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진나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용
주최: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다음 주일(9일), 교회설립 기념주일 가족연합예배 (2·3부 예배 시) 및 특별찬양 (찬양예배 시)



다음 주일은 교회설립 5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 1:16) 지난 54년 간의 발자취에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것은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롬 3:10,23) 그간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우리는 주님의 채찍을 맞으며 아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상처는 우리 교회를 더욱 십자가 복음으로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골 1:24) 특히 지난 10년의 기간은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5대 목표에 따라 십자가로 하나 되었던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엡 6:24) 이제, 더욱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딤후 3:15) 우리의 힘과 노력이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 수 없습니

다. 그것은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겸손히 그리스도를 따를 때 가능합니다. (마 16:24) 이것을 소망하며 다음 주일 온 가족이 함께 2·3부 예배에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님의 가족들이 하나되어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감격이 넘칠 것입니다. 또한 임마누엘·실로암 연합찬양대 및 오케스트라가 준비한 특별찬양 <천지창조>는 우리의 심령을 은총으로 더욱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3)

*다음 주일, 영아·유아·유치·고등부는 자체 예배

오늘, 제64 성찬식이 1부 ~ 5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믿음의 삶

벨릭스

(사도행전 24:25~27)

충독 벨릭스는 유대인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습다. 역사기록을 보면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유대 충독이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더 잘 살

려는 목표로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이 되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는 것만을 목표로 달려갔습다. 그는 성공의 사다리를 타기 위해 남의 아내였던 유대계의 아름다운 여인, 곧 로마의 권세있는 자와 친분이 있던 드루실라를 납치해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또한 부패한 관리로서 뇌물을 좋아했습니다.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도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벨릭스와 그의 아내는 기독교에 관해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4:22) 그는 바울을 직접 만나 복음을 듣는 절호의 기회를 누렸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비도덕적인 양심을 나무랐습다. 벨릭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삶의 전환점을 찾지도 않았습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는 바울을 잠시 떠나 있었습다. 벨릭스는 바울의 복음 증거를 무시했습니다. 말쑥한 능력이 강하게 그의 양심을 움직이고 있는데도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는 2년간 바울을 구류해 두는 동안 자주 바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그것은 돈을 얻으려는 부패한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26절)

벨릭스는 신령한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걸으려는 복음 듣기를 즐겨했지만 속으로는 돈을 바라보고 있었습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정말로 듣기 좋고 참된 진리라고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바울과 토론했지만 복음 그 자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에 대해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복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해 버린 것에 대해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 하지 뭐!”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내일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에게 결코 영원한 삶은 없습니다.

벨릭스는 겸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쫓는 데는 열려했을지 몰라도 영원한 것을 쫓는 데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영원한 삶을 쫓는 데에 열려했습다. 그는 세상적인 성공을 배설물로 여겼습다. 진실로 그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영원한 삶을 향한 진정한 승리자였던 반면 벨릭스는 패배자였습니다. 바울은 몸이 묶인 중에도 진정한 자유인이었던 반면 벨릭스는 돈과 성공과 쾌락에 매인 노예였습니다. 벨릭스는 당시에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그를 완전한 패배자로 평가합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 대신 완전한 비극으로 충만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입니까? 아니면 벨릭스입니까?” 2천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들의 상황은 우리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삶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적인 동의 후에 곧 잊어버려거나 다음날 다른 때로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벨릭스입니까? 만약 벨릭스의 길을 원하신다면 세상의 보화와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외모와 사회적 지위와 재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았던 벨릭스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RISE UP

(6)Then Joshua tore his clothes and fell to the earth on his face before the ark of the LORD until the evening, both he and the elders of Israel; and they put dust on their heads. ... (9)“For the Canaanites and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will hear of it, and they will surround us and cut off our name from the earth. And what will You do for Your great name?” (10)So the LORD said to Joshua, “Rise up! Why is it that you have fallen on your face?” (Joshua 7:6~10)

After suffering a small defeat at Ai, Joshua and the elders of Israel tore their clothes and fell to the earth on their faces before the ark of the Lord. Joshua prayed aloud (vv. 7~9), “Alas, O Lord God, why did You ever bring this people over the Jordan, only to deliver us into the hand of the Amorites, to destroy us? If only we had been willing to dwell beyond the Jordan! “O Lord, what can I say since Israel has turned their back before their enemies?” For the Canaanites and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will hear of it, and they will surround us and cut off our name from the earth. And what will You do for Your great name?” From a human perspective this prayer sounds reasonable, but take good notice. There is no denying and a lot of blaming. Joshua is pointing his finger at God in criticism. He thinks God is unfair; the same God who made him leader of Israel. Remember, Joshua was born a slave and received no academic education. Moses called upon him to spy out the Promised Land (Num. 13:16) and lead the Israel army in battle.(Ex. 17:9) He listened and obeyed, and God invested him with some of Moses’ authority. (Num. 27:18~23) After the death of Moses, God gave him the great commission(Deut. 31:7 ; Josh. 1:1~2), which Joshua performed well. He took Israel across the Jordan River on dry ground.(Josh. 3:17) and conquered Jericho.(Josh. 6:20) Everything was proceeding nicely until some of the men that Joshua sent to conquer Ai returned in defeat. (Josh. 7:5) After all the great and miraculous things God showed him, now when a little thing goes wrong he begins to blame God for everything. God responded to Joshua’s prayer and His response teaches us what not to do when we face unpleasant situations.

We need to stop questioning God’s character. Joshua should not have asked God why He brought His people over the Jordan. His question was condescending. It inferred that God made a mistake. Joshua experienced a little pain and immediately blamed God. As soon as something went wrong, he turned to God in judgment. When bad things happen, God’s people need to concede the good things God has done. Joshua needed to remember that God sent Moses to His people and led them all out from under Egyptian slavery. He safely crossed them over the Red Sea on dry ground, fed them manna, and produced water from rocks in the middle of the desert for over forty years. Joshua himself led God’s people across the Jordan River on dry land and marched them around the city of Jericho until the walls tumbled down. How can he or you ask why to God? I do not know the particulars of your life, but I do know that God has brought you here thus far by His grace for the purpose of salvation. Please, do not ever ask questions that cast God in a bad light. God is always good.

We need to stop focusing on the enemy. Joshua prayed with eyes set on defeat not victory. His little pain led him to think that God was going to deliver His people into the hands of the Amorites to destroy them and that if God would have let them live beyond the Jordan everything would be fine. Whatever situation comes to you, you must trust God and praise Him. Think about all your blessings and the promises God has made concerning your future. He told Abraham,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be blessed.”(Gen. 12:3) He told Moses, “Therefore, come now, and I will send you to Pharaoh, so that you may bring My people, the sons of Israel, out of Egypt.”(Ex. 3:10) He told Joshua,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tremble or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Josh. 1:9) God promises you everything, so do not turn from Him over anything. Do not speak to God in an attitude of self-righteousness, or as if you are smarter than Him. Joshua had become problem conscious instead of power conscious. In spite of God’s blessings and promises, he focused on defeat. Paul tells us, “Brethren, I do not regard myself as having laid hold of it yet; but one thing I do: forgetting what lies behind and reaching forward to what lies ahead, I press on toward the goal for the prize of 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Phil. 3:13~14) Forget defeat and expect victory!

We must stop worrying about public opinion. Joshua advised God to consider what the enemy would think concerning His actions, “O Lord, what can I say since Israel has turned their back before their enemies? For the Canaanites and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will hear of it, and they will surround us and cut off our name from the earth. And what will You do for Your great name?”(vv. 8~9) He was basically telling God that he thought He made a mistake. He was afraid of what others would think, and of what they would do. Please do not think about public opinion in your walk toward heaven. God will take care of you, so why should you be discouraged? The problem is your faith. You think you are so smart but you do not have faith. God takes care of His own reputation. He will lift up His people when they are down. He has brought victory to many defeated ones.

God told Joshua, “Rise Up!”(v. 10) He wanted Joshua to lead His people to victory. We can rise up from defeat because we have a resurrected victory in our Savior Jesus Christ. His victory is ours, so we must rise and serve. 1 Corinthians 15:57&58 say,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Amen. 

다음 주일 설교

일어나라

⁽⁶⁾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와 그의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 ⁽⁸⁾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¹⁰⁾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 7:6~10)



김성완 목사

이이성 전투에서 패한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여호와와 그의 땅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죽하게 여겨 거하였던 좋은 뵈었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7~9절)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기도는 타당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주의해서 살펴보십시오. 이 기도에는 자기부인은 없고 원망만 가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가 종으로 태어났으며 정식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그를 세워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했고(민 13:16)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게 했습니다.(출 17:9)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그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민 27:18~23)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신 31:7 ; 수 1:1~2) 그리고 여호수아는 잘 수행해 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수 3:17), 여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수 6:20)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보냈던 자들이 패하여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수 7:5)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뒤에 아주 사소한 일이 잘못되자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통해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가르쳐주십니다.

의심을 버리고 일어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의심하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나고 반문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일찍 들으면 그의 질문은 겸손하게 보일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즉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일이 잘못되자마자 돌아서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선한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였고, 만나를 먹이셨으며, 사십 년이 넘도록 광야 한가운데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그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 여기까지 주님의 은총으로 이끌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당하다는 식의 질문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일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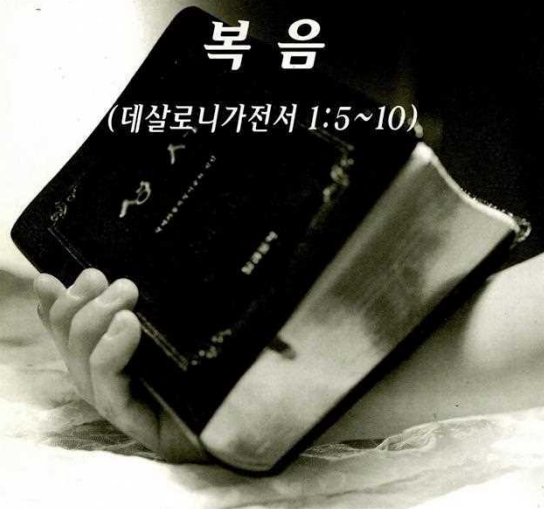
우리는 적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승리가 아닌 패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도했습니다. 작은 실패를 겪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멸하려 하신다고 생각했고, 차라리 요단 저편에서 살게 하셨다면 모든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약속하신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3)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 3:10)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나 함께 하느니라"(수 1:9)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에게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스스로 의롭게 여기거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현실의 문제를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있어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빌 3:13~14) 실패는 있어 버리고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격정하지 말고 일어나라

우리는 사람들의 의견에 신경 쓰는 일을 중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8~9절)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낙심하십니까?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스스로는 영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은 하나님 자신이 지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믿어질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10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더욱 힘써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57~58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아멘. ■

말씀의 승리



능력의 복음
복음은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살전 1:5)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들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이 임했는가?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사실 우리는 선교지에 나가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어눌한 말로 복음을 전할 뿐이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는가!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짧은 말을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롬 1:16)

16교구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지역을 중심으로 274세대 595명의 성도들이 7지역과 27개의 구역, 7개의 전도회로 구성되어 기도함으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6교구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구로 거듭나기 위해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벧후 1:10)

한 달에 한 번씩 금요찬양집회가 끝난 후 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 신앙을 바로 세우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구식구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교구라고 해도 서로 잘 알지 못하던 믿음의 성도들을 이 시간을 통해 알아가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의 특성상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교구 구성원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변화시키는 복음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살전 1:9)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은 우리의 죄를 끊고, 우상을 부셔 쓰리며,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행 17:30) 이 복음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령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게 하신다. (살전 5:23)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변화이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버려진 영혼들을 위하여 탄식하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경건한 모습을 갖추는 것도 아니고, 인격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복음을 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이다.

증거되어지는 복음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있는 복음은 증거되어지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살전 1:8) 바울과 실라를 생각해 보라. 그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은 감추어둘 수 없는 것, 반드시 증거되어지는 복음이었다. 세상이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은 더 큰 능력으로 증거되어진다. (행 4:29~31)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마치 “죄사함에 매인 사신이 된 것”처럼 복음의 도구가 되어 어디서든 복음을 증거한다. 이사야는 이런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였다. (사 52:7)

소망의 복음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가난과 질병, 전쟁과 기근, 착취와 억압으로 가득할 뿐이다.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다. 그런데도 믿는 신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축복과 명예와 성공의 총이 되어 산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것들을 참된 소망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소망이요 참 생명의 길이 다. (살전 1:6, 10, 5:9)

복음! 이에 비교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단언하건대 우주문물과 비교해도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죄인들에게 선물하셨다는 것이다. 은총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복음을 믿고, 온 세상에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자. 아멘.

기도와 말씀의 씨앗으로 세워가는 16교구

나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먼저 섬김을 실천하고 기도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노력하고 있어 믿음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히 11:6)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와 말씀의 씨앗으로 믿음에 굳게 서가는 믿음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처럼 먼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께 모든 권원을 맡기는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거둬내는 교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종말로 형제들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담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살후 3:1)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것처럼 오히려



석영성(정로, 16교구장)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섭리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길을 알게 하시고 꼭 만나야 할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아주 외지고 인적도 없는 곳에 숨겨져 있던 고아원을 방문하게 하신 일은 정말 저희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교지로 이동 중 고장난 차량을 만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113명의 고아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하신님께서 저희 팀원들을 여러 달 전부터 훈련받게 하시고 바로 그 시간에 우리를 하여금 그곳을 지나게 하셔서 그곳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고장난 차량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다른 차량의 도움으로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고아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절묘한 만남입니까! 복음을 순수하게 연결하는 어린이부터 부모의 역할을 하는 어른들까지 예수님께서 무척 사랑하시는 영혼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원 모두는 이 고아원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단기선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죄로 가득한 나를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하시고 천국복성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크신 뜻인 선교의 도구로 써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만 의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선교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예비하신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이 복음을 감사히 받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박근희(집사, 23교구)

선교의 시작과 끝은 성령님!

십자가가 내 옆에 놓여 있었다.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갈 것인가 옆으로 비켜갈 것인가? 나의 선교는 처음부터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으로 시작되었다. 처음 교구에서 선교에 대한 말이 나왔을 때부터 '가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부터 성령님은 나를 이끄셨다. 훈련을 받는 동안 순한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한 오른 손으로 나를 선교지로 인도하셨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면서 말할 때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연코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100%의 은혜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성령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교지에서 분명히 체험하였다.

선교지의 모든 것은 정말 생소했기에 처음에는 앞 길이 막막할 뿐이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여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낯은 버스를 타고 험한 길을 가면서도 즐거웠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두 소년인 전도지와 책받침을 받고 우리의 말을 알아듣고는 읽어보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복음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소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소년이 틀림없이 주님이 예비해주신 영혼임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의 달라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정미(집사, 24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3일(월) ~ 9월 11일(화)	16교구	박성명

선교일기

순수한 영혼들을 향한 십자가 복음

1일차 / 파송예배를 드린 후에 버스에 올랐다. 많은 분들의 환송을 뒤로 한 채,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에 해당교의 공항에 도착하였다.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2일차 / 선교지로 이동하는 날이다. 좌우에 넓은 평원에는 추수할 농작물이 없고 멀리서는 민둥산뿐이어서 이곳이 페마라고 영혼의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참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곳이 풍요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선교지에 기도로 준비하며 달려온 우리들에게 예비된 영혼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과 전도의 열을 주시도록 기도했다.

3일차 / 이제 본격적인 사역 날이다. 어제는 그나마 울퉁퉁퉁 파이는 했지만 그래도 포장도로를 달려왔는데, 오늘부터 가는 외진 농촌마을 길은 비포장도로라 튼튼뽕 뚫고서도 평탄한 곳이 없다. 마루로 가는 길에는 다리가 없어 강을 건널 때는 차 시동이 꺼질 듯 불안한 정도로 교통사정이 열악했다. 현지에서 만난 그들은 순한 어린 양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영혼들이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하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 동물우리에 넘겨가 가득하고 너무나도 낙후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더럽고 추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라고 보내셨고, 그 속에서도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간직하며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성도들과 기도 후 원자들의 기도소리가 우리 마음 속에 들려온다.

4일차 / 어제보다 더욱 무더운 찜통날씨이다. 너무 한 그루 없는 페마만 평원에서 사역하는 우리들은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께 의지 수밖에 없다. 가가호호 방문하며 길거리에 모여든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찬양을 가르쳐준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초목초롱한 농민들이 천국일꾼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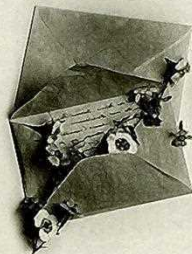
5일차 /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진 마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니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제 본 교회에서는 금요찬양집회가 시작될 시간이다.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다. 또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든든하고 주께서 새 힘 주실 것이다. 남은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길 것이다.

6일차 / 나이 드신 할아버지를 만나 말씀을 전하니 "아멘"하며 받아들인다. 얼굴은 비록 주름으로 가득하지만, 나이에 비례해서 물어있을 법한 세상에 속한 욕심이나 때론은 혼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아주 평화로운 얼굴이다. 어린이와 같이 호기심 어린 모습이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겸손한 모습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손잡은 이 할아버지가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세요."하며 우리말로 기도를 드렸다.

7일차 / 현지에서 주일예배를 드린 후 오후 사역을 나갔다. 어느 때처럼 어린이들이 몰려들었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가르쳐준다. 몇 번씩 찬양을 가르쳐주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찬양을 한다. 축포전도에서 만난 나이 드신 부부는 방으로 들어가 의자를 네다가 마당에 퍼주면서 우리에게 앉으라고 하시고 이름 모를 과자도 내주신다. 말씀을 전해주시. 그저 행복한 표정이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평강과 사랑이 나타남을 증거하신다.

8일차 / 오늘 오전 사역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역을 마치게 되니 아쉬운 마음이다. 도착한 어느 마을 중앙에는 물통을 신고서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수확의 여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분주하다. 오후에는 해당교 공항으로 가서 자정이 넘어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도착했다. 이제 말씀을 받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남아 있고, 열매는 오직 주님께서 거두실 것이다.

안연석(집사, 18교구)



고3의 생명줄, 예수님

고3이 되어서 힘들 때 내가 잘을 수 있는 건 예수님뿐이었다. 처음 3학년이 됐을 때 막연한 두려움과 막막함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나는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또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방향도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이어가며 공부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동안에 읽었던 말씀들이 힘들 때마다 힘을 주고 또 확신을 주었다. 하루 하루 말씀과 함께 하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힘도 되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다. 공부하기 전에 짧은 말씀묵상이 어려운 공부를 쉽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찾지 않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집중도 잘 되지 않고 힘들기만 했다. 주님과 함께 함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주일에 교회에 나와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지친 한 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힘을 주었다. 너무나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내가 놓여져 해도 주님이 놓지 않으셔서 붙잡혀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었다.

고3이 힘들다는 것은 공부만이 힘들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고3이 되고나서 알게 되었다. 공부만 물론 가장 힘들지만 그 힘든 것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시험을 보지만 오르지 않는 성적에서 오는 좌절감, 혼자 있어서 오는 외로움, 늘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지루함 등등 고3이라는 시기가 힘들다고 느끼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하지만 이것들을 이겨낼 유일한 힘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힘들 때, 기쁠 때, 어려울 때, 답답할 때마다 느낄 수 있다. 내가 잡은 예수님의 손이 틀리지 않고 잘하고 있음을 늘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싶다.

이은기(고등부)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두서가 없어서 무척 어렵게만 생각했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내가 단기선교를 몇 차례 다녀온 후, 이제는 두렵고 떨리며 실수하는 빈도가 조금씩 줄어 가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해졌다는 각오가 새롭고 전도지 한 장 한 장이 매우 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찬양전도대 예배를 마치고 대원들과 전도지를 들고 교회주변 전도를 나가는 걸음은 기뻐 뛰며 나간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혼을 만날까?' 라는 기대 아래, 강력히 거부하는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그리고 전하는 모든 사람이 주님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전에 나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주일 전도를 교회 주변 지역의 전도로만 생각하였으나, 내 친구, 내 친척, 사무실 직원, 길가는 사람, 나와 부딪히는 모든 아들과 대화할 시간만 주어진다면 성령님은 저에게 입을 열어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마다 단기선교 때 배우고 익혔던 간단한 교회 체계적인 전도문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전하는 숫자에 비하여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 중에는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고 단기선교를 세 차례나 나가 간 사람도 있었지만, 새가족 훈련까지 받았으나 나오지 않는 사람, 청지기 훈련 때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 주일 날 예배에서 오겠다고 약속하여 놓고 바람 맞춘 사람, 본인은 안 나오면서 주변 사람을 보내 준 사람, 간단한 차량 접촉 사고 시 전도 하였는데 몇 주 나오고 성경통신 하겠다고 한 후 나오지 않는 사람, 전화를 하면 내 번호인지 알고 아예 받지 않는 사람... 그러나 주님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 믿음과 작으나마 시간을 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할 때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하게 따릅니다. '성령님 인도하셔서 부족한 저를 만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 주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하시어 시간과 때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으로 꼭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또 복음을 전하며 태신자를 양육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자부님도 잘 못하는 저이지만 실재자의 복음을 담담히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임영희(집사, 14교구)



교구찬양을 준비하며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저에게 주님은 마리아 전도의 회장과 구역장의 직분을 한꺼번에 맡겨주셨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나에게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찬양집회, 수요예배, 구역장 영성훈련, 주일 교구모임 등 믿음이 약하고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저에게는 직분자로서 당연히 기쁨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때문에 예배와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도 나의 마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셨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모태신앙인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의심의 사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저의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기만 했던 몸이 한 달 동안 하혈을 하게 되면서 저는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찬양집회에서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나를 꼭 붙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귀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수록 간절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금요찬양집회 때 부르는 찬양가사 하나 하나가 마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서든, 차 안에서든 찬양을 듣고 부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

다. 물론 저의 원인 불명 병이 치료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완쾌한 마음이 말씀과 찬양으로 찾아 있을 때, 16교구 찬양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구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편이라 처음 교구 찬양연습이 시작되었을 때는 찬양에 힘이 없고, 자꾸 느려지 기 났습니다.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힘이 없는 찬양에 너무 속이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며 계속 된 찬양연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양연습이 진행될수록 찬양에 힘이 들어가고 찬양에 은혜가 넘치는 것을 온 교구식구가 한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한 말씀, 한 말씀이 나 자신을 가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구 식구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을 통해 주 성령 안에서 만나 되게 하소서. 주님 온 교구식구들이 주님께서 나의 이름 불러 주실 때에 큰 소리로 대답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온 교구식구들이 그 날을 기다리며 전도하고 또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조영미(집사, 16교구)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박경희(집사, 1교구)

주님! 우리들은
당신의 복음에 빛난 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 달린 당신을 이 땅에 전하게 하소서

먼저 제 자신의 전부를 당신께 드리고
저의 뜻대로 생각하지나 행동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주님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먼저 분별하게 하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
거룩함으로 주님 당신의 재림을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지체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새가족양육부 8월 수료자

세상을 이길 힘, 예수님!



♥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최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생활을 하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욱 주님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생각이 바뀌니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었으며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김백수)

♥ 고모님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좀 더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영문)

♥ 남편의 전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성적이 차분해졌습니다. (김은경)

♥ 그냥 스스로 교회에 나가고 싶어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집안에 평안이 왔고 제 자신이 긍정적인 성격이 차분해졌습니다. (강성진)

♥ 저는 천주교에서 개종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중요한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규칙적인 생활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고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기일)

♥ 예수님은 사랑, 능력, 거룩,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평안에 젖어 있습니다. (유영신)

♥ 중언외교 근처로 이사오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좋은 분들과의 만남이 있고 생활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영수)

♥ 사촌형님의 소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에 말씀을 들으며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웠고 부지런해졌으며 모든 일에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박미경)

♥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과 육신과 육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일을 지키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김영식)

♥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이 즐겁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행복합니다.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 기쁩니다. (김영진)

♥ 어머니의 권유로 중언외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부족한 저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피 주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말씀과 교제의 기쁨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연재)

♥ 동생의 전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졌고 주일을 성수하게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양미옥)

♥ 교회근처로 이사오면서 중언외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 이십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말씀의 존엄과 믿음으로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주일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한성규)

(편집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

사데교회 (요한계시록 3:1~6)

죽었거나 죽어가는 교회, 다시 말해 전혀 생명이 없는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명성에 갇혀 생명이 말라 버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사데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살았나 하는 이름은 거짓으나 실은 죽은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사데는 오래 전부터 양털 염색과 보석 산업이 발달한 부지 다 시였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사데교회는 자연히 부유한 도시가 지니는 사치와 향락이라는 퇴폐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심각한 세속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 크나큰 영적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살았나 하는 이름은 거짓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1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거짓으나 그들의 삶과 행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2절)

이와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사도 야고보는 “염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고 책망하였습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신앙, 입술의 고백만이 존재하는 믿음은 사람으로 말하면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같은 살았으나 죽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을 죽여버리게 한 온갖 죄와 허물을 숨김없이 회개해야 합니다.(3절) 회개만 죄로 인해 죽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열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첩경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시며(눅 15:7,10), 아무리 크고 무거운 범죄라도 할지라도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주시고(사 55:7), 죽었던 심령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행 2:28)

그 다음으로는 처음 전해 받은 순수한 믿음을 되찾아야 합니다.(3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은혜로 주신 순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자존심이나 욕심, 혹은 부패한 생각으로 왜곡되어 버린 신앙, 죽어버린 믿음을 고집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오직 성령이 교회를 이끄는 말씀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최종철(목사, 21교구)



사데교회(타타)

♡ 새 가족 들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87	이윤자	17	장년2부	이성숙(17)	1397	김희준	14	유난부	
1388	김미복	21	청년2부	김선지(18)	1398	박민수	25	외선부	박윤석(9)
1389	양지은	21	소년부	김선지(18)	1399	최수영	3	소년부	김병민(4)
1390	이태원	6	청년1부	임지혜(9)	1400	송재희	14	청년1부	허형철(24)
1391	주문찬	1	청년1부	오정혜(1)	1401	나라	25	외선부	장응숙(21)
1392	박지성	19	장년2부	김광연(19)	1402	진대	25	외선부	장응숙(21)
1393	박토성	23	장년2부	염선영(4)	1403	배광하	25	외선부	
1394	강미정	2	청년2부		1404	나라	25	외선부	
1395	최지은	1	청년2부	김정연(6)	1405	박하늘	25	외선부	박윤석(9)
1396	김서연	1	유치부	김정연(6)					

* 중언외교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